

亞문화전당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 전시

아시아 고유의 사상과 공간을 융·복합 작품으로 재해석, 관람객에게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상설 융·복합 콘텐츠 전시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를 오는 8월 27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에서 개최한다.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공간으로 여겨진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전시는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 핀란드 출신 작가 17팀이 창·제작한 매체예술과 설치예술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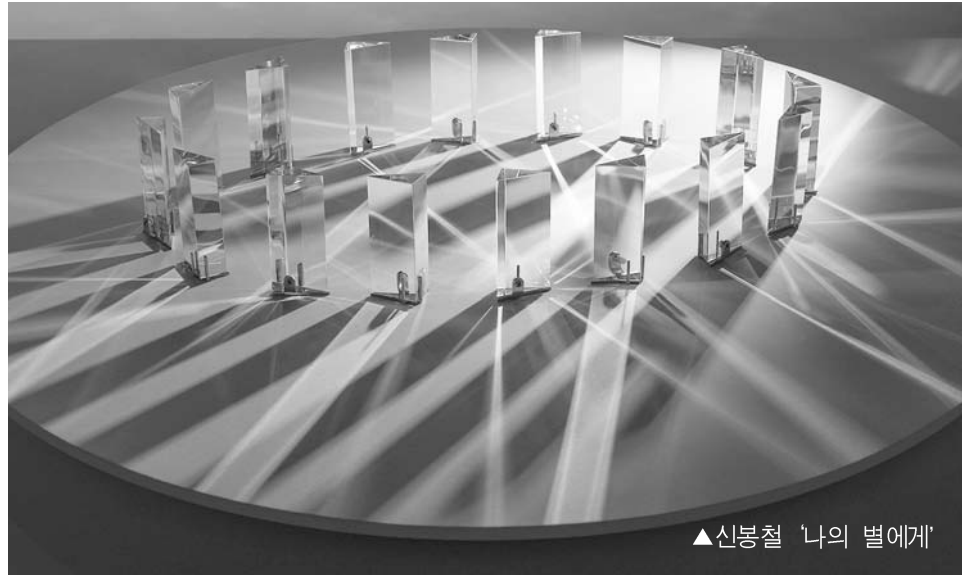
전시는 빛, 기운, 관계, 풍경, 호흡 등 총 5개 주제로 구성했다. 만물의 근원인 빛을 통해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빛으로부터’, 생명의 본성인 기(氣)를 시각화한 ‘생동하는 기운’, 자연과 인간을 이야기하는 ‘관계하기: 인간과 자연’, 아시아의 공간에 관한 ‘공존하는 풍경: 안과 밖’, 전시를 마무리하며 관람객을 사색의 공간으로 이끄는 ‘호흡의 시간’이 그것이다.

참여 작가들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한 동아시아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로 주제를 구현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먼저 17x7m 규모의 미디어월에서 상영되는 정화용 작가의 매

오는 8월 27일까지 ACC 복합전시 2관서 개최

매체·설치작품 18점 선포... 亞사상·공간 재해석



▲신봉철 '나의 별에게'

체 예술 작품 ‘무한’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생명의 근원인 ‘빛’을 소재로 한 작품은 사유의 공간으로 변형된 가상공간으로 초대한다.

발걸음을 옮겨 상상원 중앙의 원형공간에서 마주하는 작품은 A.A.무라카미의 ‘영원의 집 문턱에서’다. 작가는 특수 기

계에서 분사되는 안개림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ACC의 발광 다이오드(LED) 상층리와 연동해 만물의 본성인 기운(氣)을 표현했다.

전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방(셀)에서는 관계와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고휘, 히토시 쿠리야마, 정

성윤, 장-줄리앙 푸스, 료이치 쿠로카와, 이지연, 신봉철, 서동주 작가가 영상, 설치, 음향 등으로 서로 교감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한다.

료타 쿠와쿠보, 이용주, 료코 하마구치, 호이 링, 피아 만니코, 김봉관 작가는 아시아의 공간을 재해석한 융·복합 작품을 소개한다.

‘상상원의 바깥 공간인 커브에선 작가 ‘녹음’이 소재 원을 소재로 구성된 한국적 정원의 공간에 입체 영상을 투사한 작품으로 원과 사색의 시간으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ACC는 이번 전시에서 전문 조항사와 함께 개발한 특별한 향기를 선보인다. 달빛을 소재로 한 향기는 관람객의 전시 몰입과 사색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적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아시아를 넘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겹치기도 하는 창·제작 작품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색하고 사유하는 아시아,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개관한다.

/이영욱 기자

임을 위한 새해

- 류준식 -

임을 위한 새해가 새 빛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는 임의 아름다운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새싹들이 사랑 불러 자라고 아름다운 전원교향곡 크게 울려 시기 질투 꾸밈도 거짓도 교만의 악취도 닦아내는 오직 파란 꿈 임의 사랑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버거운 업보일랑 가벼이 내려놓고 벗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체면과 우상처럼 쟁기면 권위의 탈도 내려놓고 금불이 은불이 때문은 웃일랑 아예 훑을 벗어버리고 나아가 맞으십시오.

가장 깨끗한 몸으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슴 활짝 열고 어서 나아가 맞으십시오 오직 임을 위한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

154개국 온라인 실시간 중계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가 전 세계 154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중계한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메타씨어터를 통해 진행된다.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후보에는 ‘프리다: 더 라스트 나이트 쇼’를 비롯해 ‘라흐헤스트’, ‘벳미플라이’,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 ‘실비아, 살다’, ‘아몬드’ 등 6개 작품이 경합을 벌인다. 대상은 객석 규모의 구분 없이 국내 초연된 창작 작품을 후보로 한다.

최다 후보로는 ‘데스노트’가 400석 이상 작품상장작 및 라이선스 대상과 남자주연상 등을 포함해 9개 부문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프리다’가 7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주연상_여자’에는 김소향(프리다), 김수하(아이디), 유리아(리치), 이자람(서편제), 차지연(서편제), ‘주연상_남자’에는 강홍석(김기부즈), 서경수(김기부즈), 윤나무(쇼맨), 정성화(미세스 다웃파이어), 홍광호(데스노트)가 후보에 올랐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장암: 너럭바위마을 화가들’전

영암최초의 서양화가 문동식·중견작가 문명호·조선대 미대 교수 문형선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오는 3월 12일까지 미술관 창작교육관 1전시실에서 ‘장암: 너럭바위마을 화가들’ 전시를 개최한다.

전통과 역사의 마을이자 아름다운 월출산이 바로 보이는 영암 장암마을은 영암군 최초 서양화가 문동식(1919~1978), 중견작가로 광주에서 활동 중인 문명호(1962~),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 문형선(1976~) 모두 세 명의 화가를 배출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한 문동식은 문헌으로만 알려지던 작가였으나 2017년 유족이 미술관을 방문한 후 작품들을 기증하여, 전남 미술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자화상을 포함한 4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문명호는 조선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후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암출신 작가들의 모인인 월출미술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전국에 있는 작가들에게 영암과 월출산을 소개하였다. 현재는 꽃이 어우

러진 풍경을 산뜻한 색채로 그리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미술가인 문형선은 퍼포먼스(행위 예술)부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며 우리 현실을 미지의 세계로 안내한다. 최근에는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미디어로 표현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작가이며, 현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같은 마을 출신이지만 근대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를 아우르며 미술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세 화가의 개성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세 작가의 자화상이 각각 출품되어 심오한 예술의 내면

을 엿볼 수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장암마을 출신 작가를 시작으로 영암출신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보여주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미술인과 상생하는 미술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영두 기자



▲문동식 '무등산이 보이는 풍경'

완도수목원, 전시 아열대 생물 한눈에

선인장·다육식물 등 141종 책자 수록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아열대 온실을 소개하고, 온실 내 생육하는 전시식물자원을 담은 ‘완도수목원의 아열대온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1993년 조성된 완도수목원 아열대 온실은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열대 식물과 선인장, 다육식물 등 592종을 관람객들에게 전시·선보이는 공간이다.

이번 책자에는 아열대 온실에 전시된 대표식물자원 141종의 꽃과 정경을 보여주는 화상자료와 원산지 정보를 수록했다.

완도수목원은 그동안 난대 숲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자원과 수목원 내 전시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일환으로 생물자원을 조사해 책으로 발간해왔다.

책자에는 나비 48종, 잠자리 16종, 나방 613종, 버섯 194종, 야생동물 113종 등과 함께 초본·목본 각 100종의 자생식물, 노린재 157종, 딱정벌레 239종, 상록활엽수 85종 등 수목원에 서식하는 자원을 조사해 담았다.

‘완도수목원의 아열대온실’ 책자는 도내 시·군 등 유관 기관에 배부하고, 자료는 완도수목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